

## 춘원이 음미하던 차향기 그대로...

### 봉선사, '다경향실' 맥 이은 무료다실 열어



운허 스님이 춘원 이광수에게 내어준 거처의 이름인 '다경향실'. 춘원이 5년간 머물렀던 다경향실은 한국전쟁 당시 무너졌고 봉선사 마당 한편에 세워진 자석에서만 그 향취를 찾을 수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운악산 봉선사. 근대 불경(佛經) 한글화본 이은 운허 스님(1892~1980)과 한국근대문학사의 선구적 작가였던 춘원 이광수(1892~1950)의 차 인연이 서린 이곳에 무료 다실이 문을 열어 차향을 이어가고 있다. 봉선사를 찾은 6월 13일, 사찰 초입에 세워진 '춘원 이광수 기념비'가 먼저 객(客)을 맞이한다. 1975년 건립된 이 기념비에는 춘원과 운허 스님의 인연이 새겨져 있다.

1917년 장편소설 <무정(無情)>을 발표하며 근대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춘원.

1919년 일본 도쿄 유학생의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후 임시정부 설립 활동에 참가하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섰지만, 결국 친일로 발길을 돌리고 만다. 해방 후 친일 변절자로 낙인찍히고 문필관에서조차 소외된 그는 지친 심신을 달래줄 곳을 찾아 나섰다.

그때 춘원을 받아 준 곳이 바로 봉선사다. 당시 봉선사에는 춘원의 육촌 동생 운허 스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운허 스님은 춘원에게 '다경향실(茶經香室)'이라 이름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 무료다실. 6월 1일 문을 연 이곳에는 차 향전의 여유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지은 방을 내어주고, 춘원은 5년 동안 이곳에 머물며 차와 불교 인연을 맺었다. 춘원이 남긴 다시(茶詩)에는 조용한 산사에서 차 한 잔을 우려 마시며 느꼈을 그의 회환과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화로에 불 불어라 차 그릇도 뒤엎으라 / 바위셀 길어다가 차 달일 물 끓일 때다 / 산중에 외로이 있으니 차맛인가 하노라." 한국전쟁 기간 무너진 다경향실은 이후

### 쾌적한 실내·창 밖의 넓은 연밭 보며

### 직접 차 우려 마시면 몸도 마음도 '休~'

1978년 애월재(愛月齋)가 있던 자리에 '다경실'이란 이름으로 다시 지어졌고, 이후 역대 조실스님의 거처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다경실 뜰 앞에 세워진 '다경향실' 자석에서만 느낄 수 있던 운허 스님과 춘원의 차 인연은 봉선사 다실로 옮겨왔다.

올 6월 1일 문을 연 다실은 봉선사를 찾는 사람 누구나에게 열린 공간이다. 넓은 연밭이 내려다보이는 다실 창가에 자리를 잡

고 앉는다. 차호에는 햇차가 담겨 있고 다실 곳곳에는 물이 끓고 있다. 다구를 다룰 줄 안다면 직접 차를 우려 마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실을 지키는 사람에게 부탁해도 좋다. 다구를 정리하고 뜨거운 물을 준비해 놓는 사람들은 요일을 정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봉선사 다도반 회원들이다. 다실에서 제 공되는 차 역시 회원들과 다도반 지도봉사

혜종 스님의 보시로 마련 된 것. 다도반 지도를 맡고 있는 김미려 다예랑 회장은 "아직 다실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고 표지판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한다.

봉선사 교무국장 도암 스님은 "찜을 찾는 사람 누구나 편히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실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다실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선사를 찾는 사람이라면 부담 없이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다실을 찾아볼 일이다. (031)527-1915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짱우회(姜育發)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 19. 정보화 사회의 허식 ④

녹차의 품질은 녹차가공 중 첫 번째의 공정인 살청에서 결정된다. 살청공정에서 산화효소를 얼마나 잘 파괴했느냐에 따라 녹차의 질이 달라진다. 보이차가 녹차와 등식이 될 수 없는 것은 살청공정에서부터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보이차의 원료로 쓰인 찻잎은 살청공정을 하기 전에 이미 산화된 것이 보통이다. 찻잎은 차나무에서 채취한 후에도 호흡을 계속한다. 호흡에는 산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찻잎을 두껍게 쌓아 놓을 경우 무산소호흡으로 인한 산소의 결핍과 호흡으로 인해 생 산된 열량에 의해 찻잎이 산화된다.

도 즉 엽온(葉溫)이 90℃ 이상으로 올라가면 산화효소는 단시간 내에 활성을 잃어버리거나 파괴된다.

또한 단시간 내의 고온폭주조건방 법인 초청(炒靑) 또는 홍청(烘靑)의 건조온도는 대체로 120~140℃이므로 산화효소는 더 많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완성된 녹차의 수분 함수량이 4~6% 사이기에 추후의 산화작용을 차단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산화효소의 철저한 소멸공정은 녹차가 묵힐수록 맛이 없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반대로 고열 과정에서 싹활 또는 혼미상태에 놓인 산화효소 중 특히 폴리페놀 옥시 다젠은 햇볕에 쬐여 말리는 과정에서 산소의 수분의 참여 그리고 저온 환경에서 산화효소의 회생은 추후

### 보이차, 살청하기전 대부분 잎 산화

### 쇄청법 의한 강한 냄새 진위 판별 잣대

심할 경우 암모니아 냄새 같은 악취마저 풍긴다. 그래서 찻잎의 시들이기 작업을 할 때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일정할 두께로 찻잎을 쌓아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보이차는 어떤가? 차 소작용들은 찻잎을 쌓아 놓는 두께에 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은 마음 가는대로 찻잎을 쌓아둔다. 그래서 살청공정을 하기 전 대부분의 잎은 이미 산화 변질된다. 녹차의 경우 산화효소를 파괴하는 것이 살청의 목적이라면 보이차의 경우 산화효소와 관계없이 찻잎을 보다 쉽게 비비기 위해 숨을 죽이는 것이 살청의 목 적이다. 이것이 보이차의 살청 개념이 녹차의 살청과는 다른 까닭이다.

또한 산화효소 파괴에 의미를 두지 않는 과정에 과연 '살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타당성지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분분하다.

보이차는 산화를 좋아한다. 산화효소가 살아있어야 훗날 후발효작용에 의한 바른 보이차의 맛을 나타 내기 때문이다.

보이차를 햇볕에 쬐어 건조시켜 마무리하는 것도 산화효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롯한 작업이다. 보이 차의 살청이 비록 녹차의 살청과 다르더라도 고열을 통한 숨죽이기 공 정에서 상당한 산화효소가 싹활(失活) 또는 혼미상태에 놓이게 된다. 녹 차의 경우 살청공정에서 찻잎의 온

도 즉 엽온(葉溫)이 90℃ 이상으로 올라가면 산화효소는 단시간 내에 활성을 잃어버리거나 파괴된다.

이러한 화학반응은 보이차 뿐 만 아니라 소위 미생물발효이라 불리는 보이차에도 적용된다. '악취 발효(酸堆醱酵)' 공정이란 폴리페놀 물질들이 미생물의 작용 아래 발생 되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은 마음 가는대로 찻잎을 쌓아둔다. 그래서 살청공정을 하기 전 대부분의 잎은 이미 산화 변질된다. 녹차의 경우 산화효소를 파괴하는 것이 살청의 목적이라면 보이차의 경우 산화효소와 관계없이 찻잎을 보다 쉽게 비비기 위해 숨을 죽이는 것이 살청의 목 적이다. 이것이 보이차의 살청 개념이 녹차의 살청과는 다른 까닭이다.

이러한 휘발성 냄새들이 녹차에 적용되면 녹차의 질을 저하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지만 보이차일 경우 보이차의 진위를 판별하는 잣대로 한 몫을 하고 있다. 홍청법으로 말린 녹차가 보이차로 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한서대학교



찻잎을 햇볕에 말리는쇄청법.

### 김정희 등 차인 50명 삶 조영 정찬주씨 <다인기행> 펴내



차인의 삶을 뒤쫓아보는 일은 우리네 역사와 문화를 되짚어보는 일과 다를 아니다.

소설가 정찬주씨가 우리나라 차문화 증흥조 조 의선사와 서산대사, 보조 국사, 원효대사, 추사 김정희 등 차인 50명의 차 인연을 담은 <다인기행>을 펴냈다. '그들에게 차 한 잔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를 화 두삼아 다인들의 체취가 남겨져 있는 곳을 찾

아 나섰다. 다산 정약용이 차로 심신을 추스 르며 <목민심서>를 완성한 강진 다산초당이 나 신라 구산선문의 사자산문 개산조인 협감 선사의 차향이 스민 화순 쌍봉사, <송자대전>에 차를 권장하는 글을 남긴 우암 송시열의 남간정사 등을 따라가다 보면 차인들의 삶과 그들의 차 생활을 만날 수 있다. 정씨는 "거친 시대를 살면서도 자신의 뜻을 다하고 간 옛사람의 차 한 잔, 마음 한 잔까지 전해져 삶의 위 안과 지침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국제차문화대전, 25일까지

우리나라 차 문화·산업 전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차문화대전(Tea World Festival)이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국제차문화대 전에는 7개국 100여 개 차 관련단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적인 차 생산지인 하동과 보성 구례 제주 등의 차 업체들이 올해의 햇차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영국 중국 대만 일본 스리랑카 등지의 명차(名茶)들도 한자리에 서 만날 수 있다.

특히 사단법인 차인회가 마련한 '찻자리'의 미학적 접근'에서는 돌잔치, 페백, 개업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찻자리가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예정이다. 입장료 3천원. www.teaworld.com (02)6000-8000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진년오롱·철관음·오롱차  
대홍포·화차·인삼오롱·외 40여가지의 차

**瑞榮普洱**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 차용품전문회사 홍다원

홍다원이 위치한 북촌지역(가회동, 삼청동 일대)은 조선시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의 사이에 위치해 서울 600여년의 역사와 함께 한 전통 거주지역입니다. 주변에는 북악산과 인왕산이 있어 예로부터 길지(吉地)로 알려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홍다원은 중국 전통의 보이차와 다구용품을 전시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 보이차와 한우의 맛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파스 한 공간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수집한 50여가지의 골동품도 전시하고 있어, 차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 보이차

홍다원은 10년 전부터 주재원이 상주, 근명의 운남성 차업공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 전시된 보이차·목공예 작품과 함께 차를 시음하실 수 있는 공간

#### 자사호

홍다원의 자사호는 이심(宜興) 정산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의뢰한 작품을 취급하며, 고객이 원하는 작가의 작품 또한 주문생산하고 있습니다.



■ 희수기와 각종 차용품, 보이차를 진열한 공간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74 www.hongdawon.com  
TEL : 02)744-3311 / FAX : 02)744-3700

##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앞장 서는 포교잡지



#### 클리어마인드는,

수행이 살아있는 한국불교와 미려한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여 국외 교민들의 향수를 달래주고 국내 불자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전달하고자 국내외에 배포되는 클리어마인드는 한글·영문 혼용으로 발간되는 고품격 격월간 포교지입니다. 지금, 세계는 동양의 문화, 불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클리어마인드는 그 시작의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 클리어마인드를 펼쳐 보는 일,

진리를 펴는 귀하고 귀한 발걸음에 함께 동참하는 아름다운 몸짓입니다.

#### CLEAR MIND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과

국내의 사찰, 지인, 학교, 병원, 불교 대학, 단체, 군부대, 교도소 등에 보내고자 하시면 아래와 같은 지원 가능합니다.  
- 국내 : 30,000원(1년) - 국외 : \$48.00(1year) - 법보시 : 한구좌당 3만원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타워빌딩 736호 TEL.(02)2198-5152 FAX.(02)2198-5153 clearminds@dau.com / cmind@naver.com